

한중일 온라인 친선바둑대회 개최

전북도 · 경기도 · 중국 장쑤성 · 일본 오사카부, 3개국 4개 도시 총 32명 참가

전북도가 경기도, 중국 장쑤성, 일본 오사카부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바둑애호가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중일 4개 도시 친선바둑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3개국 총 32명이 참가하며, 선수들은 각각의 카메라로 참가 선수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촬영하고, 화면을 경기채팅프로그램(http://www.xylink.com)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른 참가자와 공유하게 된다.

10일 개막식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국가별 최연소 선수들이 참가 소감과 미래의 포부를 밝히는 사전녹화 영상으로 진행되는 등 선수들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비록 무관중 경기지만, 삼국대국을 통해 선수들은 지금까지 연습해온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상호간 우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10일부터 3일간 6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12일에는 7라운드 순위 결정 결승전을 치른 후, 1등 35만 원 등 16위까지 상금이 수여되는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전북도는 총 8명이 대회에 참가한다. 그중 참가자 김정환(5단) 전북바둑협회 전무는 "전북도 아마추어 바둑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함께 실력



전북도가 경기도, 중국 장쑤성, 일본 오사카부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중일 4개 도시 친선바둑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을 겨룰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올해 처음 개최되는 바둑교류 대회는 '한중문화교류의 해(2021~2022)'와 '한중수교 30주년(2022)'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북도와 중국 자매도시 장쑤성 국제교류부서간 국장급 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장쑤성 주최로 일본까지 확대됐다.

한편, 전북도와 중국 장쑤성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27년이라는 오랜 기간 행정, 체육, 문화 등 양자 교류로 우호를 다져왔으며, 5월 '장쑤성 기자

협회 온라인 보도사진 교류전'과 바둑 교류전, 12월 한국-중국, 한국-일본 음식문화교류사업 등 올해는 체육 문화 분야에 집중해 진행해 오고 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적인 공통 놀이문화인 바둑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 문화 아이콘으로 친선교류 대회를 가지게 됐다"며 "3개국 도시간 교류사업 분야를 한층 확대 발전시켜 전북도의 국제교류 외연을 지속적으로 내실화 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대학생 직무인턴 참가자 대상 취업역량 강화 교육

전북도 ·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학생 직무인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에 이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6일 대학생 직무인턴 참가자 144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과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참여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활용능력, NCS 기초능력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등으로 이뤄져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학생 직무인턴은 도내 대학생에게

전공 분야 체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7주간 실무경험과 함께, 현장실습비(최저임금), 일대일 전담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제공한다.

올해는 상반기에 121명의 직무인턴을 마친 상황이며, 하반기인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7주간 144명이 48개 기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중간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 135명 중 132명인 98%가 긍정적으로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 시 참여기관별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실시해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등 참여자와 참여기관 간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다.

참가자 박윤희(전북대, 24세) 인턴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좋았다"며 "막연하게 생각했던 직장 경험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니,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대학생 직무인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마다 참가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내 청년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노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서비스' 실시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 이하 전북노조)이 코로나19 방역, 재난재해 대응 등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들의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북노조는 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손잡고, 11일 전북도청 노동조합사무실(6층)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적성검사(경신),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서 도로교통공단을 찾아가 어려운 상황과 이동 중 차량들과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불안감으로, 노조 사무실에서 인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듣고 협업체 만들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상수원 상류 오염원 집중관리

전북도가 광역상수원인 용담댐, 옥정호의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상수원 상류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상수원 지킴이 91명을 투입해 호소 내 어로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감시와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상수원 지킴이들이 계도 1,434건(어로 667건, 축사 60건 등), 쓰레기 140톤의 수거 활동을 했다.

이들은 상수원 감시 활동 중 수질오염이나 녹조가 발생할 경우, 현장 사진과 메시지를 관할기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모바일 복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조류 발생의 주요 원인인 질소와 인(P)을 다양 배출하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재활용신고업체, 공동자원화시설) 등 총

442개소를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시·군 합동 점검을 한다.

특히, 상수원 등 주요 하천 10km 이내 인접 축사, 상습 민원 제기 지역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에 도민의 식수원인 용담댐, 옥정호의 수질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유물질 등이 취수구에 유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취수구에 조류방지막 2개소를 설치하고, 상류 유입 하천에 호소 내 부유물 유입 차단막 4개소 1.7km를 설치했다.

특히, 호소에서 조류가 발생할 경우 신속 제거하기 위해 조류 제거선을 구입해 비치하고, 수질이 좋은 자점에서 선택적으로 취수(수심 0~23m) 운영하는 등 조류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1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 동참하세요"

전북도 ·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출근길 직원 대상 1회용품 줄이기 대대적 홍보 1회용품 구매 · 사용 자제 ·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등 적극 실천 약속 서약서 작성 동참

전북도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일 출근길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최훈 행정부지사와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1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에 같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서약서에 서명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직원들도 1회용품 구매 ·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등을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서약서 작성에 적극 동참했다.

직원들이 서약한 주요 실천사항은 ▲1회용 컵 등 1회용품을 청사 내에 반입하지 않기, ▲사무실 및 각종 행사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수 사용하지 않기, ▲구매내역 · 커피숍 이용 시 1회용 비닐봉투 및 1회용컵 사용하지 않기,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창부투)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이와 관련 향후 도청에서 각종 회의 · 행사 시 1회용컵과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수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직원들도 1회용품을 들고 청사에 들어오지 않을 계획이다.

도청과 공무원노조는 이날 일회성



최훈 행정부지사와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10일 1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에 같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서약서에 서명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홍보에 그치지 않고,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직원들이 실천수법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제로플라스틱 전북만들기'는 첫해에 16만여 개, 지난해에는 23만여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이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청사내 1층 카페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회용컵 사

용을 자제하고, 공용컵과 개인 텀블러 사용으로 1만7,000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감축 성과를 거뒀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가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1회용품 줄이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도가 앞장서서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어 나가고 유관기관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독위원장 • 한국스피치, 웬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